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향수¹, 이성훈^{2*}

¹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²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of Low Income

Hyangsoo Lee¹, Seong-Hoon Lee^{2*}

¹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²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디지털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저소득계층의 여가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 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여가 활동 만족도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도 양(+)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의 수준도 역시 저소득계층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양(+)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과 일반 국민들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저소득계층, 여가생활, 디지털 접근격차, 디지털 역량격차, 디지털 활용격차

Abstract As the digital informatization society deepens, the digital divide of the information - underprivileged becomes increasingly serious social probl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and satisfaction level of leisure activity in low - income class. For the analysi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leisur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in 2017.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ccess and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such as having a wired / wireless information device at low socioeconomic level and availability of Internet access at all times. Second,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level and leisure satisfaction level such as PC usage ability and mobile digital device utilization ability have positive (+) relationship. Third,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such as the use of fixed and mobile Internet, also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leisur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supports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between the low income class and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 Low income class, Leisure life, Digital access gap, Digital capacity gap, Digital utilization gap

*Corresponding Author :Seong-Hoon Lee(leeseonghoon@korea.ac.kr)

Received August 24,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2,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1. 서론

우리는 여가나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 사람에게 있어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을 하지 않는 자유 시간이다. 여가란 일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 직업상의 일이나 가사, 학교 수업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외에 스포츠나 취미, 휴양 등의 활동을 말한다[1]. 최근에 우리사회는 일과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벨’을 강조하고 있다. 점점 일보다는 여가나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여가생활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을까? 혹은 디지털정보화 역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여가생활에의 만족도 수준 역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일하는 활동 외에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도 역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소위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여가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여가활동이란 매우 사실 단일한 측면에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 외에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미나 휴양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문화 예술 관람이나 참여,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 관광이나 취미, 휴식과 같은 사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1-3].

최근 들어 저소득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예전에 비해 일반인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그들의 여가활동의 참여정도 및 만족도 수준은 차별적일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진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 것인가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나 문화 활동에의 만족도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수준간에 정(positive)의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화소외계층이라고 간주되는 저소득계층의 정보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의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가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라 기타 많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첫째,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2.1. 여가 활동의 의의

여가활동을 구분해보면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 활동, 휴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1].

문화 예술 관람은 교양활동으로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행동을 말한다. 전시회를 관람한다든지 박물관, 음악연주회, 전통예술 공연, 연극 공연, 무용공연, 영화관람 등을 말한다. 반면 문화예술참여란 직접 자신이 창작 활동이나 미술, 연주 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문학행사 참여, 글짓기나 독서토론이나 미술활동이나 악기연주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 관람은 농구, 야구, 축구, 복싱, 격투기 등 각종 경기를 관람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활동, 스포츠경기 간접관람, 격투기 경기 관람, 온라인 게임경기 현장관람 등이 해당된다[3]. 스포츠 참여는 심신의 단련이나 교제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등의 구기운동 참여활동이 있으며, 테니스 등의 라켓 운동 참여활동, 당구나 포켓볼 등의 운동 참여활동, 볼링이나 탁구 등의 운동 참여활동, 골프운동 참여활동, 수영운동 참여활동, 워드서핑 등의 수상운동 참여활동, 스노우보드 등의 설상운동 참여활동, 아이스스케이팅 등의 빙상운동 참여활동,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배드민턴 등의 체력단련 운동을 말한다[4].

관광활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일시적

으로 떠나는 활동으로 낯선 지역의 풍경, 풍습, 문물 등을 보거나 체험해보는 일을 말한다[5]. 이러한 활동으로는 문화유적지의 방문활동,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 및 풍경을 관람하는 활동, 병 치료나 건강을 위해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에서 산책하거나 숲속을 걷는 산림욕 활동, 야영 등의 캠핑활동, 해외여행이나 소풍 등이 해당된다. 또한 관광활동에는 온천이나 해수욕, 유람선 타기, 테마파크 가기, 지역축제 참가, 자동차 드라이브 등도 포함된다.

취미 활동은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고 자유 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6]. 이러한 활동으로는 취미를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는 활동으로 수집활동,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미술활동으로서 생활 공예, 요리나 다도, 동물을 돌보는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 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미니홈피나 블로그 관리, 인터넷 검색이나 채팅이나 각종 SNS, 게임, 보드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활동 등이 해당한다[7]. 또 다른 취미활동으로는 바둑, 복권구입, 쇼핑이나 외식, 음주, 독서, 피부 관리 등의 미용,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이용이 있다[8].

휴식활동은 일상생활에 피로해진 심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하는 기분전환 활동을 말한다[9]. 이러한 활동으로는 산책 및 걷기, 목욕이나 사우나, 낮잠, TV시청, 비디오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 보기, 아무것도 안하기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 중 신문, 잡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신문보기 등도 포함된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는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단체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돕는 사회봉사활동,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집안이나 집밖에서 기도, 경전읽기 등의 종교 활동, 클럽가기 등이 해당한다[10]. 또한 기타활동에는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이나 통화하기, 계모임이나 이성교제, 친구만남 등이 해당하며 위에서 열거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여가활동 역시 기타활동에 포함된다[11-13].

본 연구에서의 여가란 이처럼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관광, 취미, 휴식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디지털정보화의 수준

디지털정보화의 수준은 디지털정보에의 접근과 활용 수준 등을 의미한다. 이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과거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실태 조사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계층, 노년층, 농어민 등)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14]. 본 연구의 대상은 저소득 계층으로서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는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말한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스마트 접근격차(20%), 스마트 역량격차(40%), 스마트 활용격차(40%)의 가중합계로 산출하게 된다[9].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등을 합산한 것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0.5)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0.5)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의 합으로 계산된다[14].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 조사항목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Table 1.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Research Item

division	domain	Details
Digital Information Gap Index	Digital Information Access Index	Possession of wired and wireless information equipment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y Index	Internet access available at all times
		Ability to use PC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Index	Ability to use mobile digital devices
		Whether to use wired and mobile Internet
		Intensive use of Internet

2.2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만족도

우리정부가 정보격차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정보격차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해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정보격차해소대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왔으며, 정보격차조사에서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로 바뀐 2016년 이후에도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는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계속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Table 1은 디지털정보화격차 실태조사의 결과 일반국민들과 비교한 저소득계층의 정보화 수준이다. 2014에 비해 2017년 현재 점점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반국민들의 정보화수준의 80%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14년에는 일반국민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소득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6%였고, 2017년에는 약 8.8%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Low-income class compared to the whole nation

	2014	2015	2016	2017
Low-income class	72.5	74.5	77.3	81.4

따라서 저소득계층은 이상에서 살펴본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뿐 아니라 역량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같이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5-18]. 또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서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으로 인해 여가활동에의 참여 수준이 낮을 것이며[19-22], 이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23-25].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3.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

3.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활

동 만족도수준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17년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 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저소득계층 표본추출방법은 2017년 8월 1일 현재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연령/장애유형/광역자치체별 비례할당표집 방법으로 시행하였다[5].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면접조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연 1회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을 위해 SAS 10.0을 이용하였다.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접근지수, 디지털역량지수, 디지털활용지수 및 디지털종합지수 항목, 그리고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에 명시한 대로 여가활동 만족도는 커뮤니티, 모임이나 공동체 참여에의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1점에서 4점까지의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Table 3.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survey tool

division	Not much at all.	I do not have much.	I am somewhat satisfied	I am very satisfied
Leisure (hobbies) and cultural life	1	2	3	4

3.2 저소득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단순회귀 분석

이하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Fig. 1에서의 왼쪽은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을 의미하며, 아래쪽은 접근지수를 의미한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접근지수와 사회활동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 접근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사회 활동 만족수준은 0.06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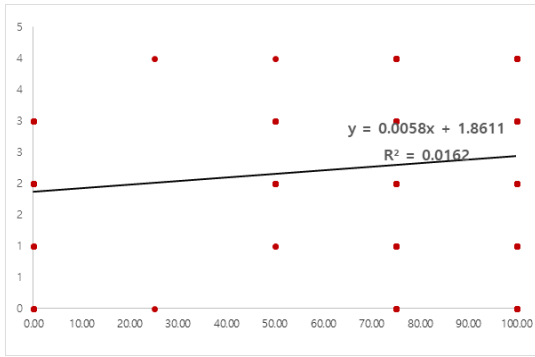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access index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저소득계층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역량지수와 사회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Fig. 2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역량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사회 활동 만족수준은 0.05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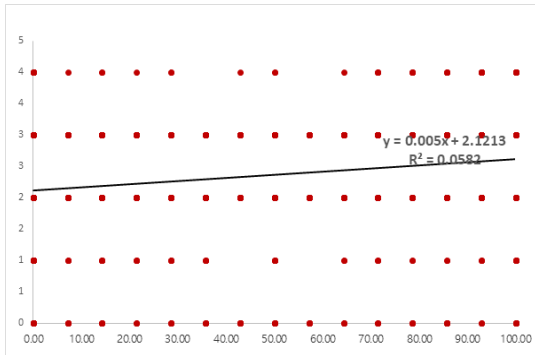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etence index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of low income class

저소득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활용지수와 여가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Fig. 3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활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준은 0.09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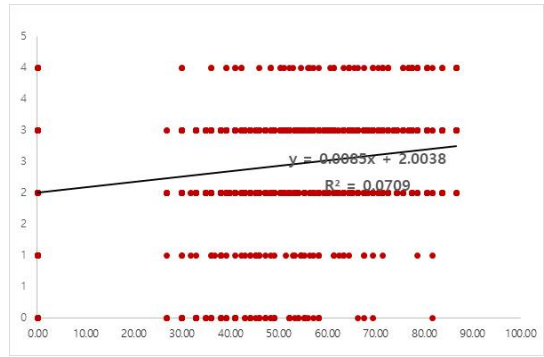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utilization index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또한 저소득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종합지수와 여가 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Fig. 4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종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준은 0.08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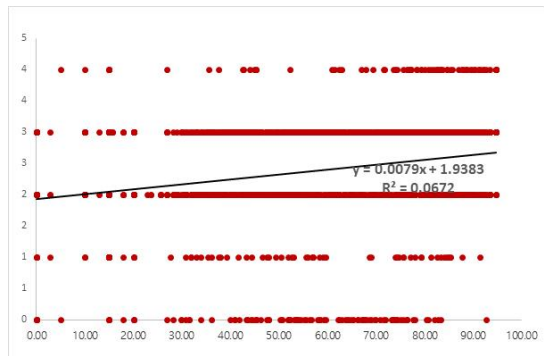


Fig. 4.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osite index of low income class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3.3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는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정보화수준이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저소득 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따라 여가활동에의 만족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여가 활동 만족도 수준과는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진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준과 여가활동 수준 역시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진다.

셋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소득계층의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도 양(positive)의 관계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디지털정보화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정보격차의 문제는 더 가중 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4-16]. 더구나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현상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격차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연구자들이 예상한 대로 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정보화, 더 나아가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Fig. 3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저소득계층의 경우 디지털 활용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다. 이로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활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를 통해 여가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유무선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때 여가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가생활에의 만족도 역시 올라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에의 접근, 활용,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시행해야 할까?

첫째,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가정의 유무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현재보다 좀 더 높여주어야 한다. 현재 저소득계층을 위한 각종 정보화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화 활용능력과 여가 활동 간에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활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화교육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점 때문이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저소득층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그러한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저소득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수준이나 범위가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농어촌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정보화 교육의 내용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은 수요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거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농어촌 지역의 여가생활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 역시 노정된다. 우선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그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여가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밝혀내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들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좀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2016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 H. J. Park. (2016). The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Tourism Social Commerc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Customer Valu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143-150. DOI: 10.14400/JDC.2016.14.3.143
- [3] S. K. Wh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Readership and Happiness in Perceived by University Athlet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401-408. DOI: 10.14400/JDC.2016.14.3.401
- [4] S. E. Choi & M. J. Park. (2017). Convergent Effect of Psychologic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Echo Generation: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201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12-19. DOI: 10.14400/JDC.2017.15.6.283
- [5] J. H. Oh. (2018). The Effect of Baby Boom Generation' Leisure Activities on ICT Skil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1-12. DOI: 10.14400/JDC.2018.16.3.001
- [6] K. M. Choi & W. K. Lim (2015).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the Culture and Education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6), 55-67. DOI: 10.14400/JDC.2015.13.6.55
- [7] S. H. Lee. (2013). A Study on Digital Convergence Related with Our Life using I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1), 429-434. DOI: 10.14400/JDPM.2013.11.11.429
-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
- [9] J. K. Kang & J. Y. Lee. (2015). Status and Tasks of ICT-base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67-76. DOI : 10.14400/JDC.2015.13.1.67
- [10] S. Choi. (2016). Study on ICT standardization unify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open Internet induction pl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79-88. DOI : 10.14400/JDC.2016.14.4.79
- [11] K. S. Noh & S. H. Park. (2013). Measures for e-Learning Policy Effectiveness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Maturity of Korean Policy Ap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11-19. DOI : 10.14400/JDPM.2013.11.12.11
- [12] S. Y. Pi & S. J. Do. (2017). The Effectiveness of the Flipped Learning using the Smart De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65-71. DOI : 10.14400/JDC.2017.15.4.65
- [13] H. S. Lee & S. H. Lee. (2018). A Study on Digital Divide of Farmers and Fisher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3-20. DOI: 10.14400/JDC. 2018.16.1.013
- [14]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 NIA. (2017).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 [15] B. W. Lim & O. J. Lee. (2012). A Study on the Social Experiences of the Elderly Applying Grounded Theory. *Korea Policy Studies*, 12(4), 477-497.
- [16] M. Y. Kim & S. J. Byun. (2018). The Improvement Index of Smart Public Services to Advance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5), 43-53. DOI: 10.14400/JDC. 2018.16.5.043
- [17] H. K. Nam-Gung, I. H. Kim & H. R. Chun. (2017). Study on the Correlates of Digital Disparity among Older Seoul Resi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73-81. DOI : 10.14400/JDC.2017.15.4.73
- [18] W. K. Kim & K. T. Hwang. (2017).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Directions of Bus Information System based on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63-81. DOI : 10.14400/JDC.2017.15.10.63
- [19] J. I. Ahn & Y. K. Seo. (2014). An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Divide: Focusing on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economic statu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69-78. DOI : 10.14400/JDC.2014.12.2.69
- [20] I. K. Jeon & J. H. Chung. (2015). Study of GUI design convergence guideline for the users of aged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323-331. DOI : 10.14400/JDC.2015.13.7.323.
- [21] Y. S. Cho, J. R. Woo & K. S. Noh. (2017). Application Profile for Multi-Cultural Content Based on KS X 7006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91-105. DOI : 10.14400/JDC.2017.15.4.91
- [22] S. K. Kim, S. J. Lee & J. G. Kim.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hased Big Data Distribution Model

Based on Big Data Distribution Ec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95-106.

DOI : 10.14400/JDC.2016.14.5.95

- [23] Y. J. Jo.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nectivity and Convenience of Smartphones of Word-of mouth Intentions in the Convergence Era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p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69-78.
DOI : 10.14400/JDC.2015.13.5.69
- [24] B. J. Lee & S. H. Lee.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rnal Marketing to Customer Orientation in Convergence Era - The Mediating Effect of S Electronic Employee's Trust to Lea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99-109.
DOI : 10.14400/JDC.2016.14.9.99
- [25] S. Y. Lee & M. J. Cheong. (2014). A Study on 'Platform' e-Government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 Multicultural Society of S.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 1-12.
DOI : 10.14400/JDPM.2014.12.1.1.

이 향 수(Lee, Hyang Soo) [중신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 E-Mail : yun7ju7@kku.ac.kr

이 성 훈(Lee, Seong Hoon) [중신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 E-Mail : leeseonghoon@korea.ac.kr